

광주 거주 6명 중 1명 '혼자 산다'...4년새 20% 급증

광주시 1인 가구 실태 보고서

최근 청년·노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 6명 중 1명이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 1인 가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총인구 138만7천619명 중 1인 가구는 23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치의 공공데이터와 SK텔레콤,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K브로드밴드 등 민간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개인 식별없이 분석한 결과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기준 광주 거주 1인 가구(5만256명)와 타 지역으로 전출한 1인 가구(1만2천86명)의 데이터를 비교해 이종(異種)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

경제 여건 분석 결과, 광주 1인 가구의 63.8%는 연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에 분포했다.

총 23만2천명...북구 용봉동이 가장 많아 연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 63.8% 집계
월평균 95만원 지출 '온라인 소비' 최다
시, 연령·성별 등 맞춤형정책 수립 추진

대출이 없는 가구는 63.4%였으며 대출 및 카드 연체자 비율은 1.1%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체자 중 30.0%는 3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집계됐다.

소비 현황에서는 1인당 월평균 카드 지출액이 약 95만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온라인 소매(26.6%), 종합 소매(12.2%), 음식점업(11.0%) 순이다.

생활 패턴에서는 1인 가구의 86.8%가 월 3명 이상과 통화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었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IPTV 등을 시청하는 비율은 30.8%였다. 다만 소득이 낮거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IPTV 시청 시간은 길어지고 평일 외출 빈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광주 거주 1인 가구와 타 지역 전출 가구 간 차이도 확인됐다. 타 지역 전출 가구는 광주 거주 가구보다 고소득 비율(연 소득 4천만원 초과)과 카드 소비액(평균 106만원)이 높았지만 통화 대상이 없거나 외출 빈도가 낮은 비율이 높아 사회

적 고립 가능성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구조 변화도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치 인구구조조사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대비 2024년 광주 전체 인구는 2.9%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19만3천명에서 23만2천명으로 19.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북구 입동이 재개발 영향으로 전체 인구와 1인 가구가 모두 증가했고, 광산구 하

남동은 1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북구 용봉동이 가장 많았으며 비율은 동구 서남동이 가장 높았다.

광주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연령대와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혼자서도 가치있는 광주생활(솔로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 '앗! 온(ON) 걸쳐 키친', 서구 '세상 밖으로 1.5보, 서로를 잇는 1.5가구', 남구 '1인 가구 성장·연결·동행 날아올라', 북구 '중장년 1인 가구 싱글업', 광산구 '마음·관계·생활·회복 패키지'와 '아재들의 취향이다' 등 자치구별 가족센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박해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이번 분석은 1인 가구만의 실질적인 생활패턴과 소비 형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출된 지표들을 향후 광주 1인 가구 정책 추진 및 1인 가구 맞춤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진기자



광주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광주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및 스포츠대회가 26일 광주 남구 반다비체육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한 이 사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 중심의 건강한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광주시 제공>

국힘 이정현 “의대 없는 전남에 공공의대 설립”

“의료, 시장중심 아닌 국가책임 전환 출발점”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6일 의료취약지 전남에 공공의과대학 설립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시장 중심 뿐만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전남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를 키우지만 국가가 쓰지 못하는 구조로 의사는 많지만 군, 섬, 응급실, 분만실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국가가 선별·교육·배치하는 공공의사 시스템을 기원하면 의대가 없는 도(道)인 전남에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갈 곳은 의사가 없어버리는 군 병원, 보건소, 보훈병원, 산재병원, 섬과 농어촌, 무너져가는 응급실”이라며 “이것은 단지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문제로, 전남 공공의대는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지금처럼 병원은 있지만 의사가 없는 공공병원을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반드시 필요한 의사를 배치해 채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장학금 주고 졸업 후 의무복무 계약하는 제도는 이미 일본,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 검증된 모델로 국가가 키울 전남 공공의대는 대한민국 의료안보의 첨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캠퍼스와 병원 포함 5천억~1조원이 들어가는 전남 공공의대 신설은 KTX 1개 구간 건설과 공항 1개 짓는 데 수조원이 드는 것에 비하면 국가 필수 인프라 대비 매우 저렴한 비용”이라며 “실현 가능한 정책이니 30% 혁명으로 다시 불씨를 살리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시원기자

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방문 신청 운영

내달 8일까지 445개소 시설 입소자 대상

전남도는 26일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27일부터 5월8일까지 고풍차·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에서 ‘찾아가는 시설 방문 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 선지급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생활시설 거주자를 위해 시·군 담당 직원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 시설은 노숙인·노인·장애인·정신·한센 인시설 등 총 445개소로 1만5천488명이다. 기초

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최대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에는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2개 시·군과 읍·면·동에서 전화, SNS, 공문을 활용해 해당 시설에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방문 일정 등을 사전 협의토록 했다.

정남호 보건복지국장은 “고유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지원금이 시설 생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고유가 지원금’ 신청 용도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는 26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원금 1차(4월27일~5월8일), 2차 신청(5월18일~7월3일) 기간 적용된다.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

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수수료 면제 조치로 해당 기간 주민센터를 찾아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해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특보]

- 병원용도: 아파트대단지대로변250평·450평 --- 4억짜지원(시설비명목)
- 대형슈퍼, 헬스장, 당구장: 집기제공 --- 6개월 무상임

[급매]

- 재개발대단지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 --- 점포4칸, 주차4대 (급매)2억6,500
- 서영대역(운암동)주거및자연녹지 투자용 --- 360평 평당80만원 총가2억8,800

[교환]

상가·모텔·주택·땅 교환합시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드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